



REPORT

헬스케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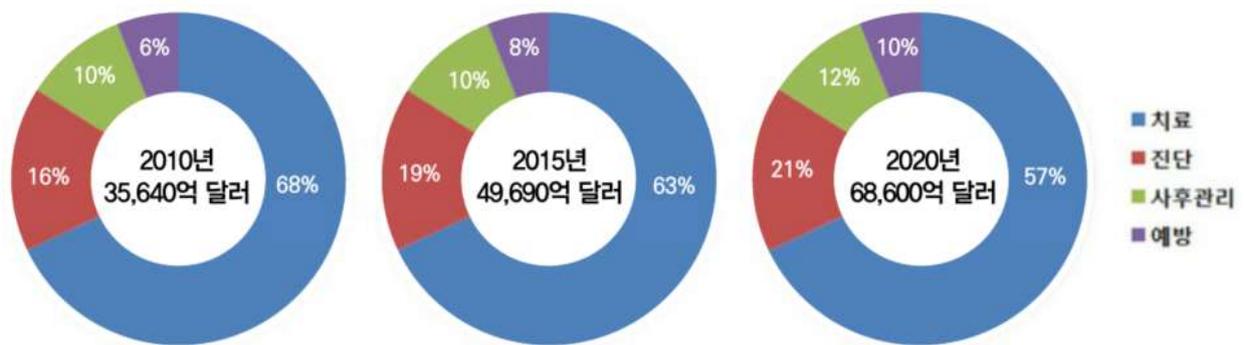
2017. 8

1. 헬스케어 발전

□ 헬스케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

- 의료서비스의 니즈는 질병 치료에서 예방과 관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음(질병 치료의 시대→건강 수명의 시대)
- 따라서 미래의 보건의료 서비스 시장은 치료 분야의 비중은 감소하고 진단, 사후 관리, 예방 부분의 시장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

<영역별 헬스케어 산업의 규모 전망>



자료: IMS Health, Euromonitor, 한화투자증권(2013)

□ 헬스케어와 ICT 기술 융합의 활용성 증가

- ICT 기술과 헬스케어 산업의 융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음

- 정보통신기술과 의료서비스를 접목하여 언제, 어디서나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됨

<의료-ICT 융합의 트렌드 변화 및 특징>

	유헬스(u-health)	→	디지털 헬스(digital-health)
주 서비스	원격의료, 만성질환자 관리		u-health + 운동·식사량 등 건강생활 관리
주 이용자	의료인, 환자		의료인, 환자, 일반인
주 player	의료기관, ICT 기업		의료기관, ICT 기업, 보험회사, 스포츠 기업 등 다양
주요 제품	생체정보 측정 의료기기		스마트기기, 웨어러블/모바일 기기

자료: kt 경제경영연구소, 한화투자증권

- 헬스케어와 ICT 기술의 융합은 유헬스(u-health)에 이어 스마트 헬스(s-health)가 새롭게 부상
 - 의료서비스와 ICT 기술의 융합은 환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시작으로, 무선 통신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유헬스(u-health)로 발전하여 언제, 어디서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화
 - 최근에는 의료와 복지, 안전 등이 복합화되고 지능화된 단계로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산을 통해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운동량이나 식사한 칼로리, 스포츠 활동 기록 등을 관리 가능한 스마트 헬스(s-health), 웨어러블 컴퓨팅 기기들과 모바일 기기들이 헬스케어 도구로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모바일 헬스(m-health)가 부상
 - 디지털 헬스(digital health)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스마트헬스, 모바일 헬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,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

수집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함

- 유헬스(u-health)와 비교하여 산업의 주도권이 의료영역(의료기관, 환자)에서 일반 소비영역(일반 제조기업 및 소비자)까지 확대된 형태를 보임

2. 기업의 대응전략

□ 플랫폼 조성

- 애플, 구글, 삼성과 같은 기업들은 개별 기업들과 사용자를 연결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
 - 애플은 다양한 센서가 측정한 사용자의 건강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 플랫폼인 헬스킷(Healthkit)을 발표
 - 구글은 피트니스에 중점을 둔 구글핏(Google fit)을 발표함
 - 삼성의 경우 삼성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발표, 클리블랜드 클리닉과 같은 병원 애트나, 시그나와 같은 보험회사 및 제약회사인 머크 등 다양한 파트너를 함께 소개함

□ 강력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

○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강력한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헬스케어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헬스케어와의 접점을 찾음

- IBM이 만든 인공지능인 왓슨(Watson)이 대표적인 예

□ 독자 생태계 조성

○ 외부 회사와 협력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의 전략도 존재

-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가전제품, 활동량 측정계·체중계 및 공기청정기 등을 만드는 샤오미, CT, MRI와 같은 영상 기기 시장의 강자인 필립스 역시 독자 생태계를 구축



(주)에이치앤컨설팅

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4길 96, 구산빌딩 2층

T: 02-561-0025, F: 02-561-0026

담당: 조인영 이사

CONTACT: Help@hnconsulting.co.kr